

설 다가오는데…전남 농가 ‘AI 곡소리’

“이자·차례상 비용 어쩌나” 텅 빈 양계장 보며 한숨만 폭폭
이동제한 연장에 발동등…정부·지자체 귀성대책 마련 고심

“(나주) 왕곡에서 오늘 또 터졌답니다. 양계장은 텅 비었는데 이동제한 조치가 또 한 달 연장됐어요. 팔아치울 닭은 없는데 이자랑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설은 어떻게 쇠야 할지…”
나주시 공산면에서 육계용 닭을 키우는 김원대(45)씨는 4일 “설은 다가오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13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갑갑하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지난달 초 키우던 닭 7만 마리를 출하한 김씨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이달 7일 병아리를 들어 명절 전까지 부지런히 닭을 키우며 설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닭·오리 사육 밀집지역인 나주지역 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면서 김씨처럼

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의 경우 닭을 출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최악의 피해를 본 가금류 사육농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름에 잠겼다. 출하를 앞둔 닭·오리가 모두 살처분돼 차례상 차릴 비용 마련도 여의치 않은데다 급방 지급해 준다면 생계지원 자금의 경우 시·군별로 지급 시기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AI 종식 시기를 종잡을 수 없는 것도 농가 시름을 키우고 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움푹달쭉 못하고 거대한 ‘가금류 공동묘지’로 변한 농장에서 집출수 피해를 걱정하며 설을 맞이야 할 농가도 한이 아니다. 땅을 빌려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

AI 발생도 서러운데 살처분한 가금류 매립도 땅주인 허락을 받아야 할 형편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초상집 분위기다.
AI가 발생 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 설을 코앞에 두고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않자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해남 산이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봉혁씨는 요즘 밥잡을 못 이룬다. 김씨의 경우 이동제한 조치가 풀려 입식은 할 수 있지만 뛰어오른 병아리값(마리당 900→2000원대) 부담에다, AI가 다시 엄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양계장을 놀리고 있다. 그는 “AI만 종식될 수 있다면 민족 대이동마저 막고 싶은 게 닭·오리 농가 주민들의 심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고,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지 답답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6일 키우던 닭 3만6000마리를 땅에 파묻었다.
나주시 반남면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

는 황인환(39)씨도 빈 농장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불과 5일 전 애지중지 키우던 오리 1만9000마리를 땅에 묻은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연일 농장을 소독하는 데 하루를 보내고 있다. 황씨는 “설이고 명절이고 그런 생활할 기본이 안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AI가 확산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방역당국은 통제초소와 가점 소독소 운영을 강화하고 귀성객들이 농장이나 축사 접근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AI 주요 피해 지역인 나주시 관계자는 “AI가 진정되기는커녕 계속 터져나오니까 방역 당국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농가의 경우 농가대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선 상황에서 명절이 다가오는 터라 축산 농가와 당국 모두 반가울 리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4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의 하늘이 뿌옇다. 1월 들어 광주의 한낮 미세먼지 농도가 ㎥당 84㎍(마이크로그램·1㎍=100만 분의 1g)을 웃도는 등 ‘나쁨’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세먼지 ‘뿌연 광주’

직원과 함께 사라진 쌀 판매대금 14억원

별교농협 신고…경찰 수사

보성의 한 농협에서 쌀 판매대금 14억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성경찰은 3일 보성군 별교농협이 “쌀 판매대금 14억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해 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별교농협 측은 쌀 판매 담당 직원인 C모

(38)씨가 지난달 25일부터 연락이 두절돼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6급 직원으로 2008년도부터 농협에 근무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판매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쌀 판매대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매장 직원 자리 비운 틈타 옷 들고 튼 5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4일 대형 마트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모(58)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대형 마트 의류매장에서 9만9000원 상당의 겨울용 외투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장씨는 직원이 화장실을 가 매장이 비어

있는 사이 옷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결혼을 앞둔 아들이 ‘옷을 사라’며 준 20만 원을 들고 매장을 찾았지만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옷에 손을 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옷 값을 치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구속과 동시에 변호사 도움 받는다

광주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제’ 3월부터 확대 시행

앞으로 구속 피의자는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3인조 강도사건’같은 일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3월부터 이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가 가장 변호인이 절실한 시기이지만 정작 이때는 개별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아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

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변호인 선임, 이들의 조력 유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게 현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거나 접견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또 변호인이 없어 구속적부심(구속에 대한 불복 심사)이나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한 사례도 그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논스톱 국선변호가 시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잘못된 수사·기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소된 뒤에도 같은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책임지면서 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거짓 알선하는 등 ‘법조 비리’의 온상인 법조 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어 들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중앙로 북한국기’ SNS루머는 허위

일베 주소 공유 글도 게재

광주경찰, 확산 자체 당부

“광주 중앙로 도로에 북한 국기를 달아놓았다”는 글과 사진이 SNS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파문이 일자 경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확산 자체를 당부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페이스북 북 계정을 통해 “최근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북한 국기’ 글과 사진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글은 2014년 9월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인천아시아안 게임 참가국 깃발을 달아놓은 것과 관련

된 내용으로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라며 “광주 중앙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양’ 대로변 인공기 필릭신고 알고보니 AG 참가국 깃발’이라는 제목의 2014년 9월 11일 자 경기지역 신문 기사도 첨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59분 페이스북의 한 계정에 ‘충북 적절함시다’라는 글과 북한 국기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는 장소를 ‘광주 중앙로’라고 적어 이 게시물을 공유했다. 경찰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소를 공유한 글이 함께 올라와 있었으며 현재 해당 게시물은 게시자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정신질환자 2시간 소동 끝 투신…매트 미리 깔아놔 무사

○…광주 한 원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가 집안 물건과 흥기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등 2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 4층에 살고 있는 A(37)씨가 흥기와 가진 제품, 옷가지 등 물건 100여점을 내던지

며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이 환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려고 하자 A씨가 오후 4시께 갑자기 뛰어내렸다는 것.
○…A씨는 다행히 119가 놓아둔 매트이 떨어지며 아무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A씨 가족은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걱정이 크다. 죄송하다. 주변 피해가 없도록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사정을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3시
	박사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2017. 2. 8(수) 오후 3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원율이 있는 대학·민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